

윤익 미술문화기획자가 본 'DIVE INTO YOU' 전



도시재생 새 모델

'공동 미로-패트런 스테이션' 24일 양경준 대표 첫 강의

'패트런'(patron)은 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후원자를 뜻한다. 세계 예술사를 발전시킨 데 패트런의 역할은 막대했다.

광주시 동구(청장 임택)가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공동 미로(美路)-패트런(patron) 스테이션'을 시작한다. 동시대 지역 예술을 창조하는 예술가 그룹과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후원자 그룹의 만남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개관과 함께 예술의 거리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할 공동예술 두레마당을 홍보하고 예술의 거리를 문화적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가기 위한 기획 중 하나다.

세부 콘텐츠는 ▲예술인들의 기업가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예술펀딩 ▲국내·외 미술시장을 주도하고 중심에 있는 명사 초청 강연 ▲로컬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네트워킹 ▲셀프프로모션 마켓·전시 등이며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술의 거리 예술창업 프로그램과도 연계, 예술의 거리 새로운 세대유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오후 6시) 공동두레예술마당에서 열리는 첫 행사는 예술의 거리 입주작가와 광주 지역 작가, 예술 소비 유형별 후원자들의 네트워킹 파티로 진행된다.

첫 강사로는 양경준 ㈜크립톤 대표가 나서 '세상을 변화시킬 예술인 기업가 마인드! 투자를 부른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전업 작가들에게 사업가 마인드 제고와 예술창업의 세계, 펀딩의 세계를 안내해 색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강좌다.

충남 부여에서 '세간책방'을 운영하는 양 대표는 액셀러레이터 투자전문가로 활동중이며 부여를 최초 민간 주도형 도시재생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어 9월에는 조명계(전 소더비아시아 부지사장) 용인대 교수가 '세계 미술시장'을 주제로 강연하며 여성·청년 창업가를 위한 특강 '예술로 창업'(11월), 작가 직거래 셀프 마켓을 운영하는 공동 패트런 무빙 파티 '나도 예술가를 응원해' 등이 열린다. 문의 062-608-2232.

/김미은 기자 mekim@

청년작가들 '자신을 찾아가는 진실한 노력' 눈길

13인 작가 작품 40여점 전시

28일까지 예술의거리 은암미술관

예향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로 들썩이고 있다. 은암미술관에서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DIVE INTO YOU'전은 지역을 대표하는 차세대 작가 13명을 초대해 수영대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예향 광주의 현대 미술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준비한 전시다.

첨예화된 현대미술의 틀 안에서 청년미술인들은 저마다의 독창적인 조형 어법과 주제성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주관적인 해석과 의미가 담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관망하며 나만의 공통 분모를 통해 작가의 작품을 감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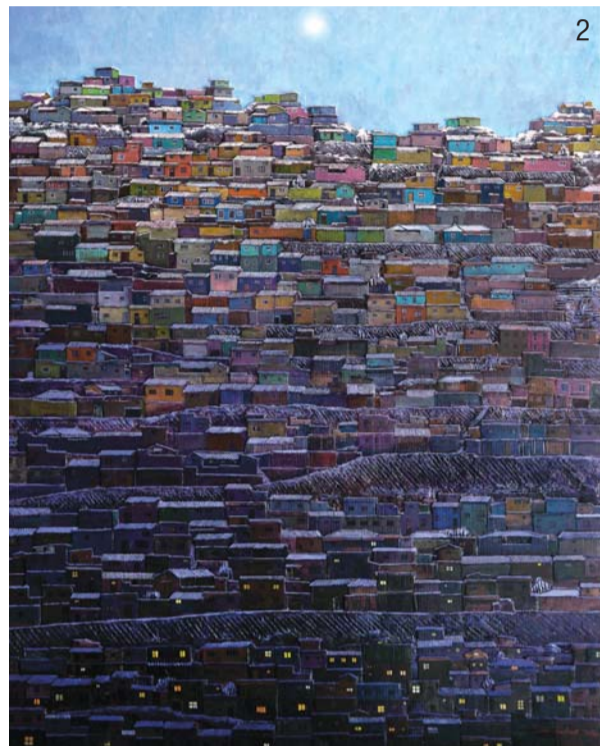
첫 번째 작가군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 감정을 이입해 활기 넘치거나 따뜻하거나 정감있게 그려내는 작가들이다. 작품 '대인시장 이모'와 '농장다리 아재'를 바라보면 박성완 작가만의 생동하는 화면이 느껴진다. 그는 민초들의 삶과 공간을 그 자신만의 애정이 넘치는 필치를 통하여 표현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담한 붓질, 생략과 묘사의 회화성 가득한 그의 작품에는 삶의 에너지가 가득하다.

노여운 작가의 작품은 보다 정적이며 부드러운 삶의 공간을 표현한다. 사람은 잠시 떠나고 없지만 따스한 온기와 체취가 남아있는 일상적 풍경은 작가의 온화한 인간미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양세미 작가의 작품에도 일상과 삶에 대한 긍정적 감성이 느껴지는 이미지들이 표현되었다. 한국화의 재료적 특성과 전통적 기법으로 화면에 담겨있는 물과 빛의 움직임은 고유하며 진중한 기운을 전달한다.

한편 송지은 작가의 편하게 그려진 그물망 속의 오렌지와 상자에 담긴 사과들은 전통적인 원근법이 무시되어 평면적인 필치로 그려져 있다. 작품 '구름다리에서의 기억' 역시 매우 평면화된 풍경으로 분방한 색채와 단순화된 이미지로 사실적 기법의 작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형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품은 묘한 편안함을 관람자들에게 안겨준다.

두 번째 공통분모로 보이는 작가군은 현실을 은유하며 자신만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이들이다. 평범한 풍경처럼 보이는 최요안 작가의 작품은 수많은 시간과 다양한 현실이 중첩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분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생과 사, 행복과 불행, 정의와 불의가 하나의 화면에 공존하는 그의 작품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은유하고 있다.

장난감 등 일상적 소품이 중첩되고 재배치되는 임현재 작가의 작품에도 그녀가 처한 일상이 담겨있다.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마치 그녀의 아이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경험하듯 그녀 스스로 세상을 새롭게 대하는, 오늘날 그녀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윤준영 작가의 작품에는 현대인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그녀만의 고유한 풍경에 담겨있다. 스스로 성을 쌓으며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는 그녀의 작품을 통해 잠시 머물며 사색하는 여행자로 묘사된다.

초현실주의적 공간에 버려진 건축물들을 재구성하는 박은선 작가의 작품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도시민의 감성이 묻어난다. 무분별한 도시개발은 새롭게 버려지는 공·폐가를 양산하고 도시 공동화 현상과 슬럼화를 자초한다. 작가는 이러한 현상을 그녀만의 감수성을 담은 작품을 통해 관람자와 소통한다. 꿈속에서 보듯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인간의 다양한 일상적 상황을 화폭에 담아내는 이인성 작가의 작품에는 무수적 기능이 느껴진다. 다양한 상향이 그려진 그의 작품들은 관람자들에게 수많은 상상을 가능케 한다. 모든 이미지가 그렇듯 기억과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부류는 자신만의 고유한 조형 언어와 독자적인 형식미의 작품을 진행하는 작가군이다. 선영현 작가의 작품은 사각형 혹은 육각형의 기하학적 패턴과 다양한 색채의 독립적 개체들이 일종의 조화를 이루는 부조처럼 보인다. 그녀는 규칙과 불규칙의 형식을 통해 수많은 개체로 재조합되는 작품을 제작한다. 한편, 멀리서 보면 다도해를 찍은 흑

백사진처럼 인식되는 실박 작가의 작품은 전통적 한국화를 새롭게 전개해낸 그녀만의 독특한 작품이다. 먹물이 깃든 한지를 찢어 붙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설명되는 그녀의 풍경들은 동양적 정서의 신비로운 감성을 경험하게 한다.

콜라주를 이용해 달동네의 풍경을 연출하는 양나희 작가의 작품 역시 그녀만의 섬세한 디테일과 수공적 한계를 통하여 매우 사실적인 회화를 제안한다. '눈 내린 월산'은 실제 존재하는 마을을 사진처럼 담아낸 작품으로 콜라주를 화면에 잘라 배치한 노력으로 평면회화의 기술적인 원근법을 능가하는 화면의 밀도와 완성도를 구성한다.

신호운 작가의 작품은 투명과 불투명의 입체물로 관람자의 시선에 따라 형상이 보이는 조각작품이다. 묘사하는 대상은 수직적 단면으로 절개하여 재조립된 그의 작품에 관람자들은 경탄을 금치 못한다. 이들의 조형적 기법과 형식은 그들만의 주제성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매우 독창적인 작업으로 고유성을 인정받고 있다.

스포츠와 다르게 미술 분야에는 금메달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정답보다는 자신들의 다양한 모범답안이 가능한 미술 분야이기 때문이다. 전시장을 찾는 이들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적인 작품활동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진실한 노력'을 하는 작가들을 응원해주면 좋겠다.

전시 문의 062-226-6677.

DIVE INTO YOU

1. 오는 28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열리는 'DIVE INTO YOU' 전.
2. 양나희 작 '눈 내린 월산'
3. 박인선 작 '응집 그리고 이완'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이공법

주택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재지대중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혁신상품부문] 수상